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므로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요구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소사사 돌라와 야일 시대를 지나면서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증가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면서 그들의 죄는 더 깊어지고 심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나라의 신들을 모조리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방 신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의 신들은 폭풍의 신인 ‘아닷’과 ‘테숏’ 그리고 태양 여신인 ‘아린나’입니다. 시돈의 신들은 ‘아스다롯’과 ‘에쉬문’인데 그 중 ‘에쉬문’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압의 신으로는 전쟁의 신인 ‘그모스’로 유명하고, 암몬의 신들은 ‘몰록’과 ‘밀곰’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신은 성경에도 자주 언급된 ‘다곤’입니다. 이는 사사 기드온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들의 타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게 하셨습니다(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면서도 예전과는 달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적군들과 싸우며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남과 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파들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 암몬의 공격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곤고가 심하였다’는 것은 ‘압제를 당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에 의해 지배와 심한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압제 끝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이 이번에는 신통치가 없었습니다(11-13절.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간구와 회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이상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의 모습은 누가 봐도 참된 회개가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임시변통의 방책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고통이 지나고 평안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라갈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즉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15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벧후 3:9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탕자와 같은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종말과 이 땅의 종말도 언젠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믿음과 신앙을 감사하고 잘 가꾸어 가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김택호<중국>, 박훈용<캄보디아>, 우석정<비에트남>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